

“언더독이 4차 산업혁명 이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은 언더독이다.” 2017년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페스티벌 ‘스타트업콘 2017’은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았다.

글 강동식 객원기자(dskang@gmail.com)



지난 2017년 11월 29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스타트업콘2017'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언더독(Underdog, 스포츠에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말)인 스타트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는 의미를 담아 ‘Underdogs lead 4IR!’라는 슬로건 아래 콘퍼런스, 피칭 콘테스트, 워크숍, 네트워킹 파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의 저명인사들이 콘텐츠 스타트업의 미래와 성공 전략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세계적 스타트업 미디어 테크크런치 유럽의 마이크 버처 편집장은 “거대기업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쉽지 않지만 콘텐츠 및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이 가상 화폐 도입과 같이 새로운 모델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 전문가인 한재권 한양대 교수는 “기술에 매몰되지 말고 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며, 사회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이념넷을 비롯해 7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아티스트 및 전문가와 협업한 쇼케이스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가상화폐 보상 등 새로운 모델 만들어야 마이크 버처 테크크런치 유럽 편집장

스타트업콘 2017의 첫 기조강연자로 나선 마이크 버처 테크크런치 유럽 편집장은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르고 거대 공룡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환경이지만 콘텐츠와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이 성공할 길이 있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에서 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대 기업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광고에 의존하는 모델에서 벗어나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마이크 버처 편집장은 30년 전에 나온 크레이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손목에 차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며,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는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1997년 뉴욕타임즈의 예측이 무색하게 19년 만에 알파고가 인간에게 승리하게 된 것은 여러 기술이 합쳐지면서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버처 편집장은 현재 스타트업의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기술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 큰 문제는 막대한 힘을 갖고 있고 광고시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자이언트 기업들”이라며 “이들의 그림자 속에서 안정적인 구독자(고객)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헤쳐나갈 길이 있으며, 몇몇 기업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버처 편집장은 “(그동안 많은 콘텐츠 스타트업이 시도해온) 광고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익 모델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더 많은 모델이 나올 것이며 지금 가상화폐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는 기존의 화폐에 비해 편리함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등 혁신적 거래 형태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처 편집장에 따르면, 스티밋은 콘텐츠를 큐레이팅하고 포스팅하면 가상화폐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2억 5700만 달러에 달한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스티밋은 관심에 대해 가상화폐로 보상하는 모델을 통해 성공사례를 쓰고 있다. 또 프레스코인은 독자의 평판에 따라 저널리스트에게 가상화폐를 배분해 기존의 광고 수익 모델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버처 편집장은 “모바일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와 가상화폐는 매우 좋은 결합 형태로, 가상화폐 제공 모델은 향후 수 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한국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의 온라인 구독 모델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고 인터넷 속도가 빠르는데다 출퇴근 시간이 길다는 것도 콘텐츠 기업에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등 모바일 미디어의 좋은 테스트베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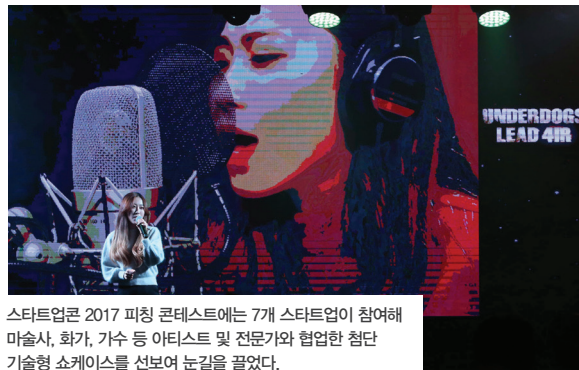
버처 편집장은 “한국의 콘텐츠 스타트업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세계에서 고객, 모바일, 플랫폼, 보상(가상화폐)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처 편집장은 또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창업가는 꿈이 크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며, 자본과 고객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버처 편집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중요하고, 기업들의 지원, 특히 대기업의 인수 추진과 재투자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실리콘밸리가 이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처 편집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창업 지원은 정부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며, 스타트업 환경의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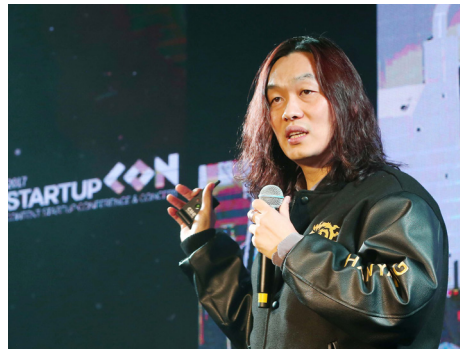
이번 스타트업콘 2017의 무대는 지하 차고에서 성장한 기업의 언더독 성공 스토리처럼 공장과 문화 공간이 함께 하는 성수동의 창고를 개조한 에스팩토리에서 거친 환경과 첨단의 이미지가 어우러진 형태로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



스타트업콘 2017 피칭 콘테스트에는 7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미술사, 화가, 가수 등 아티스트 및 전문가와 협업한 첨단 기술형 쇼케이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기술 넘어 사회의 요구 읽어라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



국내 대표적인 로봇 전문가 한재권 한양대학교 융합 시스템학과 교수는 ‘로봇기술 진화에 따른 산업 변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혁신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술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고 사회의 요구를 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재권 교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자동차 소유 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공유경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은 공유경제에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이어 “혁신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회적 가치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유행으로 발전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처럼 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로봇의 발전과 인간의 일자리에 대해 잘하는 게 너무 많은 로봇이 연봉이 높은 직업부터 대체하기 시작하고 연봉이 낮고 인간이 안하려는 직업도 대체하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중간 연봉의 직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직업 분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자동차의 발전이 가져온 (건지 않아 생기는 건강의) 결핍이 헬스산업을 낳은 것처럼 로봇이 갖고 올 결핍을 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적인 것’을 채워주면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❶

INTERVIEW

최승혁 이넘넷 대표

“머신러닝으로 고달픈 이미지 처리 원스톱 해결”

우리 사회가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미지 생성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인터넷, 쇼핑,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그만큼 이미지를 다룰 일도 많아졌다.

이미지 처리와 활용의 시작은 이미지 추출(Clippping)이라고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간을 요하는 이미지 추출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매일 이미지를 다루는 디자이너에게도 매우 번거롭고 고달픈 작업이다.

스타트업콘 2017 피칭 콘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스타트업 이넘넷은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줄 수 있는 이미지 추출 서비스 ‘이넘컷’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

최승혁 이넘넷 대표는 “이넘컷은 학습된 객체를 이미지에서 인식해 추출하거나 객체를 제외한 배경을 제거하는 서비스로, 간단한 영역 설정만으로 원하는 그림을 추출할 수 있다”며 “2017년 1월 이넘컷 버전1을 오픈한 이넘컷 서비스의 회원이 4만 명을 훨씬 웃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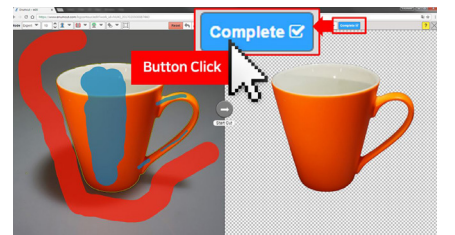
이넘넷이 이처럼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기술의 혁신성만큼이나 기술이 가진 사회적 효용이 크고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넘넷은 고화질 자원, 처리작업 완전 자동화 등 이넘컷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기업에 사용량 기반으로 제공하는 이넘컷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넘넷은 이와 함께 이미지 인식 및 추출 기술을 동영상에도 적용할 수 있게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내 한 심의 관련 기관에서 데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미지 인식 및 추출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기계학습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문인력



최승혁 이넘넷 대표(위), ‘이넘컷’ 서비스를 통하면 간단한 설정만으로 배경을 제거할 수 있다.(아래)

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계학습 적용을 대폭 확대해 이미지 인식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넘넷은 미국, 일본 등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한 메이저 동영상 및 웹툰 기업에서 데모를 진행하는 등 일본에서 먼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타트업콘 2017 피칭 콘테스트에는 이넘넷 외에도 ▲글로벌 파티 주선 모바일 플랫폼 스타트업 더대시 ▲클라우드 소싱 자막 기반 글로벌 영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사이 ▲글로벌 아티스트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디오션코리아 ▲셀프 인테리어 가상현실(AR) 디바이스 스타트업 아키스케치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술 큐레이션 플랫폼 스타트업 아티스폰 ▲간편 짤방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앱 스타트업 짤기가 쇼케이스를 선보여 주목받았다.